

[오사카, 2013년 11월]

1. 관할지역 현장 이슈

▶ 생굴 소비기한 6일간 연장 -수산해지센터가 기술개발로 관동지역 경쟁력 강화-

히로시마현립종합기술연구소 수산해양기술센터는 지금까지 4일간이었던 생굴의 소비기한을 6일간으로 연장하는 선도유지기술을 개발했음.

생굴 소비기한은 수산식품위생협회가 책정한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10도 이하에서 조갯살이 된 날을 포함해 4일」 이내였음. 산지에서 관동시장 출하는 동북산에서는 생굴 가공의 다음날에 경매에 부쳐져 약 3일간 매장에 진열해 놓을 수 있는 반면, 히로시마산 경매는 2일후에 부쳐져서 매장에는 약 2일 밖에 진열해 놓을 수 없음.

이런 판매 기간차이가 관동대도시권에서 히로시마산 굴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원인인 되고 있음. 동센터는 금년도에 생산자와 가공업자가 협력해 현지에서 확실한 시험을 실시하고 기술도입을 진행해 온 결과 굴 껍질을 깬 직후부터 수송까지 전 공정을 0도로 일관 관리하는 것으로 소비기한연장에 성공했음. 굴 가공판매회사가 상품화하여 10월부터 판매를 개시했음. 연구 성과는 2월에 발표됨.

▶ 수산물 무역 수량·금액 모두 증가 -가격지수 하향, 선진국시장을 반영-

FAO(국연식량농업기관)이 7일 발표한 「2013년 푸트· 전망 11월」에 의하면 2013년의 세계어업·양식업수산물 거래는 수량, 금액도 완만한 증가기조가 될 전망이다. 반면, 수산물 가격지수는 10년 수준의 높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지만, 침체된 선진국 시장이 반영되어 대체로 하향세에 있고 2013년 상반기는 전년대비 1.8%로 감소했음. 양식업의 가격은 다소 상승경향이지만 높은 수요가 아니라, 일부 어종의 극단적인 공급부족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여지고 있음.

총공급량은 1억6,000만톤 전년대비 2%증가. 1인당 수산물 소비량은 양식생산의 증가로 계속 상승하여 19.7kg 될 전망이다. 식용을 위한 공급량은 양식산이 자연산을 맹추격하고 있어서 늦어도 2015년에는 역전될 것으로 보임.

세계시장은 계속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선진국 정세의 영향을 끌고 있고, 일본은 엔화 약세로 수입에 제동이 걸리고 미국 상반기 수입량은 수량, 금액 모두 전년대비 보합상태임.

▶ 학교급식 식재료 80% 일본산으로 -2015년도 목표로 신설-

일본 내각부 식품육성추진실은 7일에 학교급식에 따라 일본국산 식품재료 비율을 2012년도 실적 77%에서 2015년도까지 80%이상 식품육성추진 기본계획 목표치 수정안을 제출하고, 공개멘트를 모집하고 있음. 의견은 내년 6일까지 모집함.

식품육성 기본계획은 제1차 계획(2006~2010년도)으로 「학교급식에 따라 일본국내산 사용목표를 2010년도 30%이상」 책정했음. 그러나 목표년도까지는 30%이상을 달성할 수 없었음.

2차 계획(2011~2015년도)으로 개선하고 2015년도까지 30%이상을 목표로 설정함. 이번 수정에서 각도시별로 일본국내산이 부족할 경우 다른 도시의 농림수산물을 활용할 것을 짜넣고, 일본산 식재료 사용률을 2015년도 80%이상으로 계획함.

2. 수산물 수입동향 및 전망

□ '13년 9월 수산물 수입 전년 대비 7.8 % 증가 ('12년 9월 수산물 수입액은 116,572,952천엔)

(단위: 천엔, %)

구 분	'13년 9월 당월		'13년 1~9월 누계	
	금액	전년동기 대비(%)	금액	전년동기 대비(%)
수 산 물	125,693,912	7.8	1,116,149,687	0.3

(자료 : 일본 농림수산물)

□ 주요품목 수입동향

품목	'13.1~9월	'12.1~9월	전년 대비	1위		2위		3위	
				국가	금액	국가	금액	국가	금액
수산물 전체	1,116,149,687	1,112,352,997	0.3	중국	200,437,106	태국	92,615,278	러시아	90,962,448
◦가다랑어류 (신선,냉장,냉동)	2,344,702	3,409,454	△31.2	인도네시아	2,169,950	한국	58,119	필리핀	47,123
◦참치류(신선,냉장,냉동)	126,185,250	140,862,856	△10.4	대만	22,071,763	한국	15,910,504	호주	11,119,118
- 날개다랑어	3,698,991	2,515,024	47.1	대만	1,466,076	바누아투	1,010,333	한국	414,327
- 황다랑어	17,022,675	21,685,024	△21.5	대만	4,365,693	인도네시아	2,852,795	필리핀	1,677,354
- 참다랑어	34,311,987	28,511,272	20.3	몰타	7,297,625	스페인	5,098,206	멕시코	4,977,207
- 눈다랑어	40,467,723	55,006,333	△26.4	대만	15,607,838	중국	5,602,971	인도네시아	4,992,552
- 남방다랑어	12,070,066	12,391,898	△2.6	호주	10,430,098	뉴질랜드	796,108	한국	464,337
◦황 넙치(030199220)	2,575,580	2,002,386	28.6	한국	2,575,580	-	-	-	-
◦삼치(신선,냉장,냉동)	1,730,508	1,691,005	2.3	한국	1,699,714	중국	30,509	미쿠로 네시아	285
◦금눈돔(냉동)	1,281,295	1,911,929	△33.0	쿡제도 (뉴질랜드)	574,993	뉴질랜드	437,520	한국	194,789
◦오징어(活,신선,냉장,냉동)	37,028,392	33,807,046	9.5	중국	11,811,033	태국	8,405,785	베트남	4,245,657
- 몽고오징어	8,406,934	10,629,279	△20.9	태국	3,102,955	모로코	1,687,158	베트남	1,413,260
- 오징어(몽고제외)	28,621,458	23,177,767	23.5	중국	11,795,246	태국	5,302,830	베트남	2,832,397
◦전복(活,신선,냉장,냉동)	5,497,389	5,133,762	7.1	한국	3,514,173	호주	941,900	중국	377,226
◦굴	2,418,350	2,067,074	17	한국	2,258,136	뉴질랜드	66,421	미국	38,507
- 굴(활,신선,냉장)	255,323	202,870	25.9	한국	184,844	호주	25,389	미국	23,388
- 굴(냉동)	2,106,266	1,803,964	16.8	한국	2,016,531	뉴질랜드	66,421	미국	15,124
- 굴(훈제)	56,761	60,240	△5.8	한국	56,761	-	-	-	-
◦패주(活,신선,냉장,냉동)	475,833	762,115	△37.6	한국	278,252	중국	169,594	필리핀	14,769
◦바지락(活,신선,냉장,냉동)	4,786,027	3,902,368	22.6	중국	2,985,711	한국	1,800,316	-	-
◦염건 수산물	44,151,999	42,992,540	2.7	중국	13,714,484	한국	8,432,405	칠레	5,567,538
- 건조김	2,046,133	2,020,893	1.2	한국	1,501,297	중국	544,836	-	-
- 톳	2,340,916	2,103,531	11.3	한국	1,427,186	중국	913,730	-	-
- 미역	7,267,586	6,942,108	4.7	중국	5,768,457	한국	1,486,044	아르헨티나	13,085
◦게 조제품	14,977,850	14,755,184	1.5	중국	9,076,754	한국	2,943,055	인도네시아	1,944,546
◦한천	3,452,309	2,880,467	19.9	칠레	1,617,779	한국	769,966	모로코	524,323

- 농림수산성이 발표한 '13년 9월 누계 무역통계에 따르면 수산물의 '13년 9월 수입량은 187,667,886KG으로 전년동월비 16.8% 감소, 금액은 125,693,912천엔으로 7.8%의 증가를 보임. 1~9월 누계는 수입량 전년동기비 10.8% 감소, 금액은 0.3% 증가로 수량은 큰 폭으로 줄었으나 금액은 조금 증가함.

- 품목별로 보면 참치류의 수입량이 계속해서 증가 추세를 보였고, 11월은 지난달 보다도 대폭 증가하였음. 특히 날개다랑어의 증가로 한국산이 3위로 자리를 다시 차지하고, 남방다랑어는 변동없이 제자리 걸음임.

3. 타국산 (관할지역 생산, 타국수입산) 경합품목 동향

① 넙치

- 한국산을 중심으로 큐슈지방 (오이타, 나가사키, 가고시마)에서 입하되고 있음
- 일본국내 입하량이 적었던 작년에 비하면 올해는 안정된 입하가 전망되고, 시세도 전년도와 비슷할 것으로 전망됨
- 500g/마리 1,600~1,000엔, 600g/마리 1,600~1,000엔, 800g/마리 1,800~1,000엔, 1kg/마리 2,000~1,000엔

② 굴

- 일본산은 히로시마중심으로 효고, 오카야마, 미에 지방에서 입하하고, 수입품은 한국에서 입하함.
- 올해는 산리구산(미야기현)도 작년보다 많이 입하될 전망임.
- 산리구산 이외에 생산은 양호하지만, 거의 작년과 비슷하게 제공될 것으로 예상됨
- 시세는 히로시마, 오카야마, 미에(생식, 가열) 2,200~1,500엔, 한국산(가열) 1,300~1,000엔

③ 삼치

- 아오모리에서 시마네에 걸쳐서 일본해역 중심으로 입하되고, 이와테와 미야키에서도 입하가 있음
- 전체적으로 전망되는 것은 이후부터 큐슈에서 입하가 예측되고, 전년과 비슷하게 입하예정임.
- 한국산은 입하도 시세도 작년과 비슷할 것으로 전망됨.
- 일본산 큐슈 2~3kg/마리 1,800~800엔, 한국산 2~3kg/마리 1,200~500엔

④ 전갱이

- 전갱이류 가라지(마루아지)는 미에, 나가사키, 효고현 중심, 큰 전갱이류(히라아지)는 나가사키, 미에, 시즈오카현에서 입하가 전망됨.
- 큐슈지방의 히라아지는 큰사이즈(300~400g)정도 예측됨. 두 어류 모두 전년도와 변동이 없을 것으로 전망되고, 시세는 약간 오를 기미로 보임.

지역	큰 전갱이 (히라아지)		가라지 (마루아지)	
큐슈	300~400g/마리	1,200~1,000엔	200~350g/마리	600~500엔
미에	250~350g/마리	1,000~800엔	180~200g/마리	600~300엔

⑤ 전복

- 서일본에서는 어업금지 지역이 늘어나지만, 미야키·이와테의 산리구지역(아오모리현)과 홋카이도 지역은 어업금지가 해지되었음.
- 대부분 한국산 양식이 주체를 이루고, 시세는 일본산 12,000~4,500엔, 한국산 5,500~4,000엔 전년도보다 높을 것으로 예측됨.

⑥ 참치류

- 신선품은 황다랑어뿐이고, 인도네시아와 대만에서 입하가 될 것으로 전망됨
- 냉동품은 참다랑어와 인도다랑어가 입하가 적어서 수량도 적을 것으로 보임.
- 눈다랑어와 황다랑어도 수량이 적어서 우량품도 소량으로 예측됨.

4. 특정품목 시장동향 [굴]

겨울에 빠질 수 없는 굴은 영양가가 높아서 바다의 우유라고 부를 정도로 폭넓게 메뉴에 사용되고 있음. 올여름 기록적인 불볕더위와 연이은 태풍의 영향으로 소비가 꺾이고 고수온 등도 있었지만, 대체로 강수량이 많아서 전국적으로 생육이 순조롭게 확대판매 될 것으로 전망됨. 10월 중순에 시험 어획이 시작되고 「속이 짝 찬 굴은 예년과 비슷하고 전년보다 좋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음.

□ 생산현황

○ 미야기 지역

동일본 지진으로 재작년에는 318톤, 작년에는 597톤 머물렀음. 올해 출하(JF미야기 생식용 굴판장)은 1,500톤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11월 현재 JF미야기 공판실적은 수량 191톤으로 전년동기비2~3배임.

○ 아케시 지역

굴 생산은 9월부터 본격화되고 올해는 양과 가격모두 안정적인 것으로 전망됨. 현재 1월부터 11월 까지 굴 생산은 전년도비 18%증가 428톤 전년보다 웃돌고 있음.

○ 이와테 지역

10월1일 굴생산 시작으로 kg6,000엔 최고치를 기록했음. 올 시즌은 출하량은 껍질 껌 굴37톤으로 지진전보다 1/3수준, 껍질 있는 것은 100만개 4정도 예상하고 있음.

○ 히로시마 지역

올해는 개시를 10일 늦게 시작되었음. 해수 온도가 높아서 생육이 늦어져서 염려되었지만, 현재 순조롭게 전년도와 같은 시기보다도 좋고 예년과 같은 수준임. 일관작업으로 품질향상을 위해 저온관리와 염분농도를 철저히 관리하고 있음.

○ 오카야마 지역

JF오카야마 어업연합은 가열용 10월31일, 생식용은 11월8일부터 출하하였음. 올해는 1,800톤에서 2,000톤을 전망하고, 내년 2월에는 가공장의 최대 처리량 30톤 생산될 것으로 예측됨.

○ 효고 지역

올해는 기온도가 높았기 때문에 소비시작은 이제부터 시작임. 생산량도 증가하고 있고, 굴은 1년 굴로 가열해도 줄어들지 않는 것이 특징임. 작년 생산량은 7,900톤이었음.

○ 미에 지역

출하량은 작년과 비슷한 약간 상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10년 전부터 「미에산 굴 안심협의회」를 설립하고, 노루위루즈 검사를 매주 실시하고 안전 대책을 세우고 있음.

(1) 국가별 굴 생산량

단위: 천톤 (껍질 포함)

국가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일 본	219	208	204	190	210	200	166
중 국	3,347	3,403	3,509	3,354	3,504	3,643	3,756
한 국	279	314	351	279	265	290	306
미 국	181	185	192	173	189	213	185
프랑스	118	111	111	104	104	95	95
멕시코	46	48	50	44	41	53	86
태 국	19	19	23	17	26	28	10
대 만	28	29	28	35	22	36	35
캐나다	16	16	13	10	11	13	13
필리핀	17	17	21	20	20	23	22
호 주	12	12	14	14	14	15	14
핀란드	6	7	8	8	9	13	11
그 외	23	22	21	22	23	19	18
계	4,311	4,390	4,545	4,271	4,438	4,640	4,716

(주1) 생산량은 양식과 어획을 합한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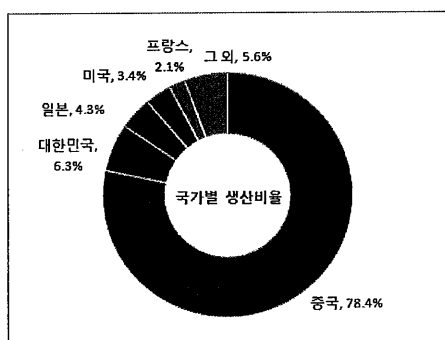
(FAO자료)

(2) 지역별 굴 생산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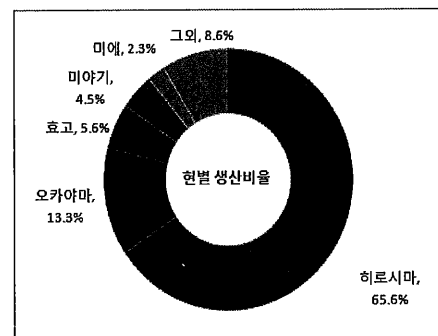
단위 : 톤(생굴)

지역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히로시마	20,192	19,241	19,332	17,497	19,147	19,407	19,418
미야기	5,519	4,452	4,504	4,504	4,918	4,165	1,332
오카야마	2,990	3,467	3,187	2,514	4,058	4,226	3,939
효고	1,402	1,740	1,425	988	1,416	1,267	1,665
이와테	1,428	1,006	1,228	1,403	1,274	958	329
미에	747	826	889	882	692	722	694
홋카이도	664	684	716	638	620	695	636
이시가와	375	267	288	300	286	296	306
후쿠오카	236	394	351	356	450	451	472
카가와	213	350	254	254	246	174	206
니가타	×	273	215	171	161	56	140
에히메	109	105	×	×	132	137	102
시즈오카	×	×	88	94	62	53	76
교토	83	117	122	110	93	96	67
나가자키	98	92	92	105	150	129	105
오이타	19	10	25	18	24	36	24
그외	404	154	178	218	101	88	85
계	34,479	33,057	32,930	30,052	33,830	32,956	29,596
히로시마산 점유율	58.6	58.2	58.7	58.2	56.6	58.9	65.6

2010년



2011년



□ 수입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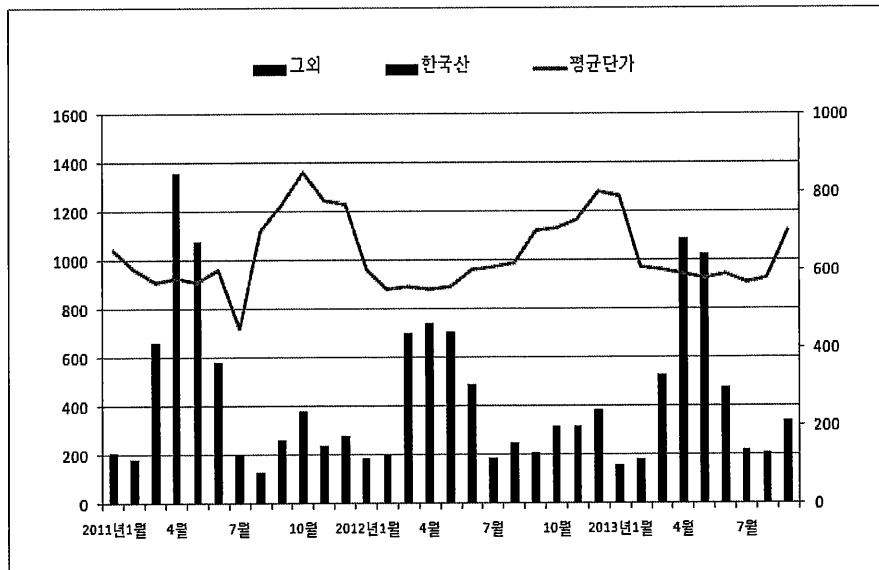
- 동일본 대지진 이후 우세한 한국산 굴이 막이 오르고, 원/엔 환율 하락으로 전년도대비 20% 상승해서 kg당 1,300~1,000엔 정도임.
- 한국산 9월 신선굴 수입량은 전년비 38%감소해서 18톤이지만, 냉동 굴은 9월 전년동월비 2~3배 232톤, 1~9월 누계에서도 17%증가 3,568톤 증가함.

(단위-수량:kg, 금액:천엔)

품명 국가명	2010년		2011년		2012년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신선·냉장		냉동	
					수량	금액	수량	금액
한 국	3,979,268	2,292,419	4,894,431	2,925,475	806,724	625,053	3,335,259	1,834,145
중 국	65,168	24,065	63,074	25,164	37,894	12,106	12,350	5,999
뉴질랜드	71,722	78,842	98,657	116,661	-	-	83,183	120,249
미 국	17,060	18,491	124,432	53,295	27,581	24,770	18,444	10,616
호 주	62,386	58,228	41,190	50,548	20,194	28,188	26,772	34,062
캐나다	1,693	2,042	-	-	660	1,029	-	-
그 외	3,236	2,097	8,416	6,513	15,721	11,168	-	-
합 계	4,200,533	2,476,184	5,230,200	3,177,656	908,774	701,314	3,476,008	2,005,071

(주)2011년까지는 살아 있는것, 신선/냉장/냉동한 것 합한수치

※재무성무역통계에 따라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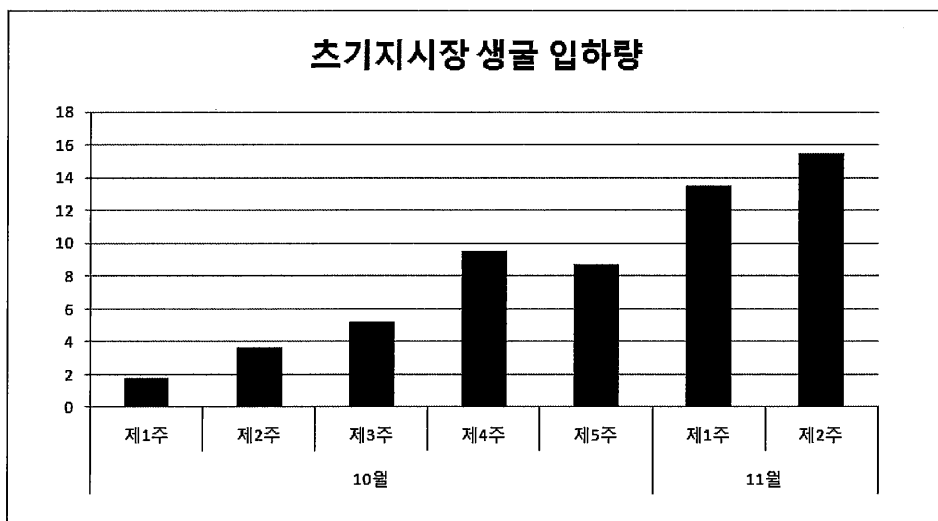
□ 소비시장동향

- 동경초기지시장에 입하한 생굴은 이와테현, 미야기현 등 동일본산 26.1톤, 서일본도 119.6톤으로 거의 20% 가격 상승할 것으로 전망됨.
이와테산 kg/4,000~2,300엔, 히로시마산 kg/1,800~1,400엔 거래되고 있음.
- 관서지역은 홋카이도를 시작으로 이와테, 미야기, 미에, 효고, 오카야마, 히로시마, 구마모토 및 한국에서 순조롭게 입하하고 있음. 취급량은 전년수준의 약 80%정도라서 어려운 상황임.
- 신선 생굴 도매가격이 떨어지고 있음. 11월 21일 도매가격은 전월대비 30%가 저렴하여 kg당 1300~1100엔. 11월에 들어온 오카야마와 히로시마산의 입하량은 1.5배가 증가함.
- 11월이 되면 전굴·찌개 재료로 판매가 증가하는 생굴이지만 올해는 대낮의 기온이 높아 수요가 침체되고, 거래문의가 적어진 것도 시세가 하락한 요인이 되고 있음.

동경·초기지사장의 생굴 입하수량 비교(2013년/2012년)

집계 기간	생굴 합계 (톤)	산지별 내역(톤)			팩
		동일본 (이와테,미야기, 니가타,시즈오카)	서일본 (미에,히로시마,효고, 오카야마 등)	한국	
2013년(10월1일 -11월15일)	209.5	26.1	119.6	34.9	28.8
2012년(10월1일 -11월13일)	166.8	2.8	98.9	40.2	24.9
전년대비(%)	126	938	121	87	116

<출처: 일간수산경제신문 2013년 11월 21일>



<출처: 미나토신문 2013년11월22일>